

42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전 3:10~15, 고후 5:8~10
은혜찬송 180장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찬양 69장 (맑고 밝은 날)

오늘 배울



1.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음을 압니다.
2. 주님께 상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압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전 3:14~15)



말씀을 이해하기

죽음 후에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통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다른 심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받을 형벌의 정도를 결정 받기 위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있습니다. 또 다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그리스도인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오실 때에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심판은 천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광을 차지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무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죄는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다시는 평가되지 않으리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 개인적이며 공개적인 심판, 철저하고도 편견 없는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심판이기에 자비로운 심판이 될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상급을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10)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at each one may receive the things done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or bad.(2 Co 5:10)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②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에 기록된 '자기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백보좌 심판대(계 20:11~15) 앞에 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고후 5:9~10) 앞에 선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2

로마서 14장 1절~12절을 읽고 답해 봅시다.

① 로마서 14장 10절의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좌 심판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일까요?

②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③ 죄를 강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 있을지 책망 받을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① 칭찬 받을 일

② 책망 받을 일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전 3:1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우

롬 12:1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고전 3:14~1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고후 5:10

↓

계 20:12

↓

계 20:13

↓

계 20:14~15



심판주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과 차들로 늘 붐비는 미국의 어느 대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해 오는 거대한 트럭에 치어 죽을뻔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중년 신사가 뛰어들어 청년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신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숨을 건진 청년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일어나더니 말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법정에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년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살인자에게 물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살인자인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판사님은 저를 아시지요?” 청년의 말에 법정 안은 조용해졌고, 판사도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판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제가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을 때 말이예요. 제발 부탁이니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방청석의 사람들은 모두들 판사의 얼굴을 주시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자네를 구해주려 했었지. 그러나 오늘은 처지가 다르네. 자네는 죄를 지었고, 따라서 더 이상 자네를 살려줄 수 없네. 지난번에는 내가 자네의 구원자가 되었으나, 오늘은 심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있어요~



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지만 만약 구원 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부끄럽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의 기준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받았지만 상급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후 5:9~10)

여기서의 선악은 도덕적인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성령을 따라 산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비록 내게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 편을 택하면서 순종하는 것 등이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려 하는 것 등은 모두 악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